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7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0년 5월 2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Hymn	2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새12)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1 번 시편(Palm) 95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히(Hebrews) 10:1-18 박진선 집사

설 교 Sermon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김일선 목사
(Through The Sacrifice of His Body Once for All)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194 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새 26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주 염려와 불안함으로 기쁨을 상실했고,

문제에 집중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영적 무지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복음을 알고, 또한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5:3-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글개역 히10:10)

“And by that will, we have been made holy through the sacrifice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NIV Hebrews 10:1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24 (주일)	5/25 (월)	5/26 (화)	5/27 (수)	5/28 (목)	5/29 (금)	5/30 (토)
	민34	민35	민36	신1	신2	신3	신4
본문	시78:38-72	시79	시80	시81,82	시83,84	시85	시86,87
	사26	사27	사28	사29	사30	사31	사32
	요일4	요일5	요일1	요삼1	유1	계1	계2

수/요/ 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5/27수 오후7:30)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민 15:1-21)

지난 주일(5/17)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히 9:16-28)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9:27)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운명적 현실이자, 실존적 문제(‘죽음’과 ‘심판’)를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붙잡고, 살아내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 곧 복음의 메시지는) 1)첫째 ‘희생(Sacrifice)’이며(히9:16-18), 2)둘째, ‘용서(Forgiveness)’이며(히9:22), 3)셋째, ‘구원(Salvation)’입니다(히9:27-28). 여기에서 희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의미이며, 용서는 사랑을 뜻하며, 구원은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마치) ‘시한부 인생’과도 같았던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근원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Accept), 우리를 믿어주셨고(Believe),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Care), 우리를 기대하셨고(Desire), 우리의 허물을 지워주셨고(Erase), 우리는 죄를 용서하셨고(Forgive),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Give).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